

□ 개요

- 목적 : 해외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수주전략 지원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일시/장소 : '21. 7.7(수) 16시 /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정책과장, 정경인 서기관 등 4인
 - 협회 : 정책지원센터장, 지역실장 등 6인
 - 기업 : 롯데건설, 쌍용건설 등 주요 해외건설 시공기업 임직원 6인
 - KIND : 김소웅 실장
- 안건
 - 21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및 하반기 전망
 - 해외건설 정책지원방향 공유
 - 주요국* 해외건설 동향
 - * 미얀마, 리비아, 이란, 페루
 -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 정보 공유
 - * 케냐, 우즈벡, 베트남, 인니, 페루, UAE
 - 기타 : 건의 및 애로사항 등

□ 주요 내용

○ 해외건설정책과장

-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마련된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목표를 잘 성취해내기 위해 본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업별 주요 내용

■ 롯데건설

- 상반기에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발주한 1,200억원 규모의 통합 교통허브 사업을 수주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공사·입찰 일정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큰 실적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임
- 싱가포르, 필리핀, 방글라데시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방글라데시는 발주공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는 필리핀 남부철도 사업 입찰 중임
- 공공사업 보다는 수력 및 주택·건축 인프라 PPP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니 관세 규정으로 인해 수력발전 사업은 지연되고 있으나 진행 중이고 주택개발 사업은 베트남에서 활발히 추진 중임
- 공기업 예타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의 완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한 공유 부탁
 - * (답변) 대경장 회의에서 신속예타제도, 예비협약제도, 신남방·신북방 사업의 경우 정책성 지표 우대 등이 추가되었으며, 제도 개선 진행 중임
- PPP 사업의 EDCF/EDPF 연계를 위해서는 수원국 재무부의 신청(PCP)이 있어야하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 제안 단계에서 국토부, 수은 등 정부 측의 직·간접 지원이 필요함
- PIS Fund의 운영기간 15년이라는 조건은 인프라 PPP 사업이 통상 20~30년임을 고려할 때 현실과 괴리가 존재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며, 각 섹터(PIS)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화가 필요함

■ 쌍용건설

- 4개 국가 20개 현장을 운영 중이며, 국내외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최근에는 국내 사업에 집중 중임

- PQ 통과 후 참여 및 예정 사업 규모는 17조 정도이며, 연말까지 7,000억원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고급건축 및 병원공사에 특화되어 있어 두바이의 랜드마크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 및 싱가포르 우드랜드 미래형 종합병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필리핀 남부철도 사업과 싱가포르 CR (Cross Island) line 지하철 사업에 입찰 중이나 입찰 지연으로 연내 수주는 어렵고 내년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음
- 건설기업 입장에서 보건분야(병원건축)는 의료장비 배치, 보안, 환자 동선, 전력 공급망 등 일반 건축물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사업임

■ 한화건설

- 신규 사업 수주보다는 기존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9일 이라크 총리의 사업 현장방문 시 조기 현장 정상화 등 희망적 메시지 전달로 조속한 미수금 회수를 기대 중이나 10~11월에 예정된 총리 총선 결과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함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의 수주금액은 100억불 규모이며 현재 약 40% 공정에 도달했으나, 저유가,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이 겹치며 사업 전반이 지연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 발주처로부터 공정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청도 있었음
- 이라크 상황 악화로 현지에는 아국인 35명, 현지인 240명, TCN 노동자 230명을 고용하여 관리 중이며, 이는 피크 타임 (각 430명, 1,400명, 9,800명) 대비 현저히 낮은 인원임
- 특별계정을 통한 사업 자금 조달(EDPF) 시 경쟁력이 있는지 질문
 - * (답변) OECD협약에 따라 외국 ECA와 비슷한 수준(유럽 대비 +0.5% 정도)으로 운용하고 있음

■ 계룡건설

- 인니 까리안 EPC 사업은 현재 입찰 준비 중이고 미얀마 산업단지에는 직원 2명이 파견 나가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업체 접촉에 제한이 많아 입찰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하며 기업의 백신 우선접종에 속도를 내어주시길 바랍
- 해외 토목·인프라 PPP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물색하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에서는 주택사업에 주력 하고 있음
- 시공 기업의 수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F/S 단가 책정 과정에서 통계치 적용 방식이 아닌 물가상승, 환율변동 등의 리스크를 고려한 단가 기준 상향 조정 책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JICA의 선례를 통해 개선방안 강구 필요

■ 엘티삼보

- 싱가포르 현장 전체 중단 등 코로나로 여파로 상반기 수주는 전무하며 하반기 경기가 풀리며 2,500억원 정도 수주 예상
- 싱가포르, 홍콩, 중동 지역을 주로 타깃해왔으나 5년째 중동 지역 실적 전무로 아시아로 타깃 변경
- 자국보호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하도급 중심의 수주가 어려워 원도급으로의 전환을 위해 타 업체와 JV로 참여하는 등 실적 축적에 노력 중임

■ 일성건설

- 몽골, 필리핀, 파라과이, 미얀마 등 4개의 현지법인을 운영하며 수주 도모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수주 전무
- 파라과이 정부가 로컬·국제 입찰 예산을 보건 예산에 투입하며 대부분의 입찰은 연기되었으며 연내 IDB, CAF에서 발주 예정인 ODA 사업들도 연기됨
- 몽골에서는 아파트 수백세대 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사업에 진출해 있으며, 7월 말 한-몽 항공운행 재개 예정 및 6월 대선 결과에 따른 건축공사 정상화를 위해 모니터링 중

- 파라과이와 몽골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필리핀,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 위주의 재원 확보가 보장된 ODA 사업 위주로 입찰에 참여 중이고 PPP 사업은 현지 실정을 잘 아는 파라과이만 검토 중이며, 하반기 실적 향상을 기대 중임

□ 향후 계획

-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정부 건의 검토 등. 끝.

- 정책지원센터 -

붙임 : 주요 참석자 명단. 끝.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국토부	과장	오성익	
	정경인	서기관	
해건협	센터장	정창구	
KIND	실장	김소응	
해외 건설 기업	롯데건설	팀장	정승호
	쌍용건설	파트장	김유진
	한화건설	팀장	정태희
	계룡건설	부장	송영학
	엘티삼보	팀장	고낙천
	일성건설	부장	조창호